

‘읽거나 말거나’ 시대에 독서 신세계를 꿈꾼다

임영라 | <임영라의 가벼운 책 읽기> 운영자

책읽기에 관한 인터넷사이트(bookrv.alohagate.com)를 운영한 지 아홉 달이 지났다. 그동안 소소한 재미를 느낄 만한 일들이 꽤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났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일부 학생들로부터 이상한 요청을 담은 전자우편을 받는 경우다.

“급해요. 무슨무슨 책 독후감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주로 이런 내용이다. 그중에는 아주 상세하게 “줄거리 분량은 어느 만큼이고 비판적인 내용도 포함해서 원고지 몇 장 분량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겠지만 부탁드립니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경우, 애교로 때우려는 사람, 아예 욕박질러서 받아내려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까지 다종다양하다. 보통은 방학 끝 무렵과 국어경시대회가 열릴 즈음에 그런 ‘전자우편 공세’에 시달린다.

인터넷의 보급이 책읽는 인구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대개 비판적 견해가 많다.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왜 책을 읽지 않는가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는 대답보다 “책 말고도 재미있는 게 많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본 기억도 난다.

재미? 물론 그렇다. 그런데 무슨 재미인가? TV와 인터넷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책이 최고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독서가 곧 국력이다’는 영감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말거나 내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옛날이 좋았지” 하며 되뇌는 일만 한다 해도 누가 나더러 뭐라 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한번 클릭으로 뜨는 정보, 손만 뻗으면 잡히는 정보만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꿈꾼다면 그 정확한 실체를 판단하고 본질을 꿰뚫는 일은 누가 하겠는가.

작금의 세대가 영어나 컴퓨터에 관한 한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는 등, “죽도록 해야 살아 남는다”는 등 하지만 책이라면 “읽거나 말거나 니 맘대로 하시죠” 하는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의 짧은 역사가 3천년 가까이 되는 책의 존재를 일순간에 뒤집으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더구나 어느 쪽이 죽고 어느 쪽이 사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책을 만드는 사람이든, 책을 읽는 사람이든 적극적으로 책과 테크놀로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고, 그것이 이 와중에 책을 읽고 끄꿍대며 자신의 언어로 독후감을 쓰는 다수(라고 믿고 싶은)의 학생들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인데, ‘책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항상 상상하는 것은 언젠가 만들어질 장벽 없는 거대한 책 커뮤니티다. 책을 둘러싼 환경이 더욱 두터워지고, 책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유영할 수 있는 거대한 공동체. ‘독자’라는 익명의 수동적 소비자가 적극적 수용자의 입장으로, 또 새로운 문화의 생산자로서 태어날 가능성이 엮보이는 사이버 신세계.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그게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 같아서다. ■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주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대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공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